

뉴질랜드, 농업개황

뉴질랜드는 국내산 농축산물 및 식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선진 농업국이며, 연중 온화한 기후로 육류와 유제품을 위한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축업분야 외에도 원예와 같은 비전통적 수출분야의 수출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의 농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1. 뉴질랜드의 농업환경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북섬, 남섬)과 많은 소규모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면적은 26,870천 ha로 남한 면적의 2.7배에 이른다<표 1>. 기후는 해양성으로 온난한 편이나 연간 강수량은 건조지역의 380mm에서부터 습지의 8,000mm이상인 곳까지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총 4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5.9%는 북섬에, 24.1%는 남섬에 거주하고 있다. 도농 지역별로는 전체의 85.9%가 도시지역에, 14.1%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종 분포는 74%가 유럽인의 후손이고,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남태평양군도, 아시아 및 기타국가들이다.

표 1 국토면적과 이용 현황

단위: 1,000ha

	1992	2002
곡물경지, 목초지, 휴경지	13,841(51.5)	11,975(44.6)
원예경지	90(0.3)	110(0.4)
외래수목지	1,335(5.0)	1,879(7.0)
총면적	26,870(100)	26,870(1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뉴질랜드는 해발 200m 이하인 지역이 국토의 1/4을 차지하여 평지가 부족한 편이고 국토의 50%정도가 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경지 중 대부분은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근래 들어 과일,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과 외래 수목 재배를 위한 경지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196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국제수지 위기가 이어지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한 정책기조 하에 수출지향 농산물 증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비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신용확대, 세금공제, 수출인센티브 지급, 가격 안정제, 가격 지지제, 토지개발에 대한 양허, 그 토지에 대한 주식자본화 등이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생산자보조추정치(The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는 1983년에 35%로 절정에 이르렀고, 이는 EU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에 따라 1984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과대평가된 환율, 과다한 통화량 증가 등은 통화정책을 약화시켰다. 뉴질랜드 달러의 대량 판매는 국가의 대외 준비금을 고갈시키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1984년 6월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다른 어떤 선진국도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농업 분야로부터 야기되는 재정적자의 심각성, 수출에 있어서 농업 분야와 다른 경제 분야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농업보조 정책이 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상품에 따라 부족불 혹은 수출보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최저가격지지제도(supplementary minimum prices: SMP)로부터 가장 두드러진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년에 걸쳐 사라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PSE가 3% 미만으로 떨어진 1990년대 초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PSE는 1%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2>.

표 2 OECD 국가의 생산자보조 추정치(전 상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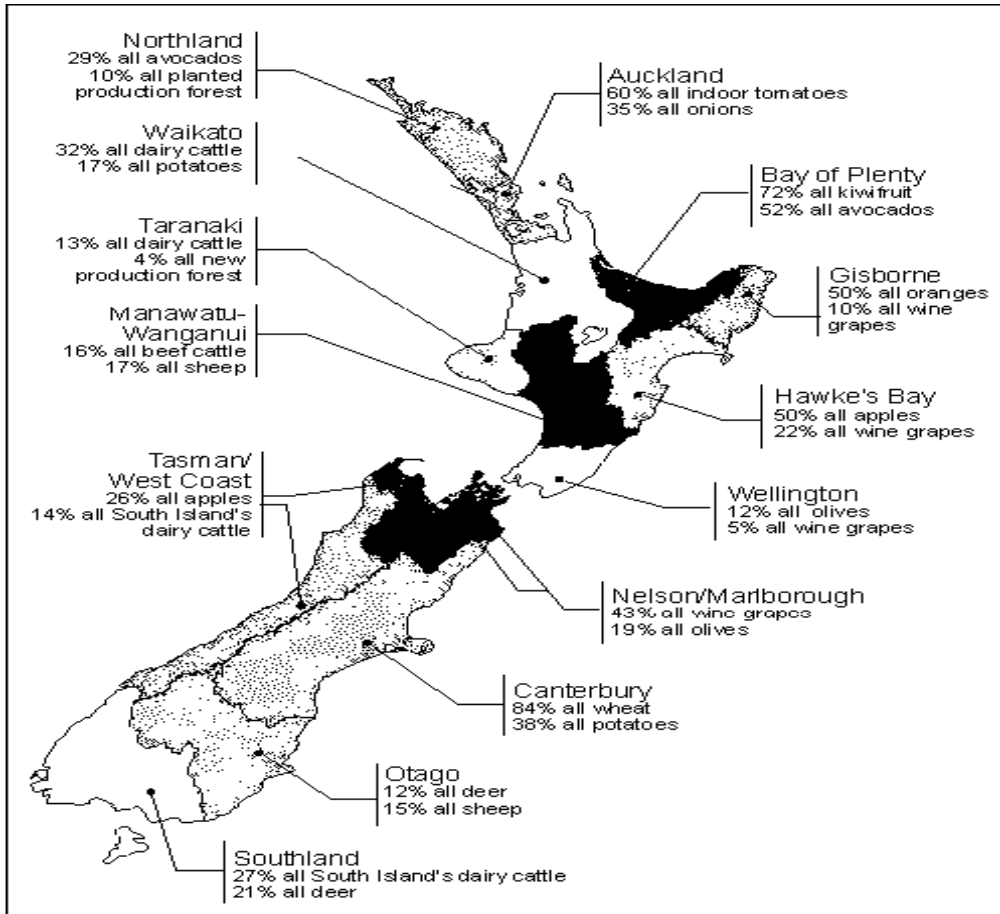
	1979-81 평균	1986-88 평균	1990-92 평균	1992-94 평균	1994	1996	1998	2000	2002
뉴질랜드	18	11	4	3	3	1	1	1	1
호주	8	9	11	10	10	6	7	5	5
캐나다	20	34	42	31	26	15	17	19	20
EU	36	40	47	48	49	39	39	34	36
미국	14	25	22	21	19	17	23	22	18
일본	60	61	68	74	75	63	62	60	59
OECD평균	29	38	42	42	42	33	34	32	31

자료: OECD.

2. 뉴질랜드의 농산물 생산

뉴질랜드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거의 1년 내내 잔디가 자라고, 기후가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을 위한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북쪽 지역에서는 아열대 식물을 재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다<그림 1>.

그림 1 농축임산물 지역별 생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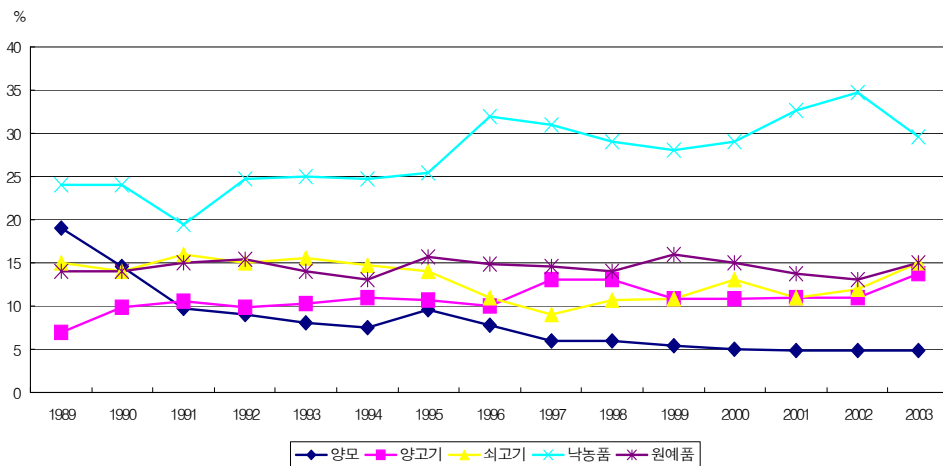


자료: <http://www.maf.govt.nz>

뉴질랜드 농업의 특징은 협소한 국내시장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도 1960년대부터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였다. 즉 전통적 목축업 생산품인 양모(wool), 육류,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예 분야와 같은 비전통적인 수출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다른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농가들은 1960년에서 1983년 사이 양과 소의 수를 50%까지 증가시켰으며, 원예작물 재배면적을 85%까지 늘렸다. 특히 양과 소 사육의 경우 그러한 증가는 생산보조를 통한 인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서 양고기와 양모 생산은 급격히 반전되었다. 1984년에서 1990년까지 전체 양 수는 거의 20% 감소했다. 그러한 감소는 계속되었으며 2003년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양의 수는 1955년의 양의 수와 같다. 양 사육자들은 그들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여러 다른 사업을 전개하였다. 예전의 정부보조에 의해 생산에 이용되었던 많은 한계지는 휴경지로 남겨나 산림이 식재되었다. 그리고 일부 목초지는 쇠고기, 유제품, 원예 농산물 생산지로 바뀌었다.

그림 2 농산물 주요 품목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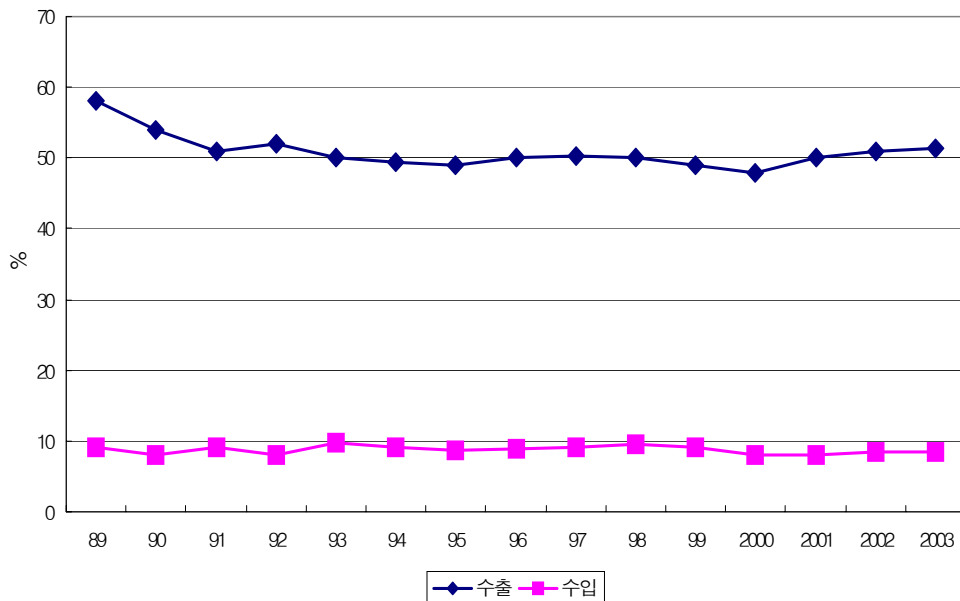
자료: New Zealand MAF.

<그림 2>는 1989년 이후 뉴질랜드 농산물 총가치에 대한 주요 품목의 비중 변화이다.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양모의 비중이 1989년 19%에서 2003년에는 5%이하로 감소한 것과 낙농의 비중이 2003년 2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쇠고기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며 양고기는 약간 증가했다. 다만 양고기 변화 중 특징은 다 자란 양고기 대신 어린 양고기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원예산업 비중은 1989년 13%였으나 2003년에는 약 15%로 증가했다.

3.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입

뉴질랜드의 농산물과 식품 수출은 뉴질랜드 전체 상품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비교우위를 반영한 것이다. 단지 400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 국내 시장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몇 농산물은 80-90%가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수출은 총수출에서의 비중이 1989년 57%에서 1995년 48%로 감소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52%에 이르렀다<그림-3>.

그림 3 총 교역에서 농산물(식품포함) 수출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품목별로 볼 때, 유제품 수출은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의 비중이 1989-1991년 24%에서 2001-2003년에는 36%로 증가했다<표 3>. 전체 농산

물 수출에서의 비중이 늘어난 품목은 음료(주로 포도주)와 가공식품이었다. 뉴질랜드가 수입하는 농산물 및 식품은 총 상품 수입의 10%이하이다. 주된 수입 품목은 신선 및 가공 열대 농산물, 일부 곡물과 같은 국내 생산 시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들이다.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가공 과일과 채소의 비율은 1989-1991년에 평균 14%였으나 2001-2003년에는 2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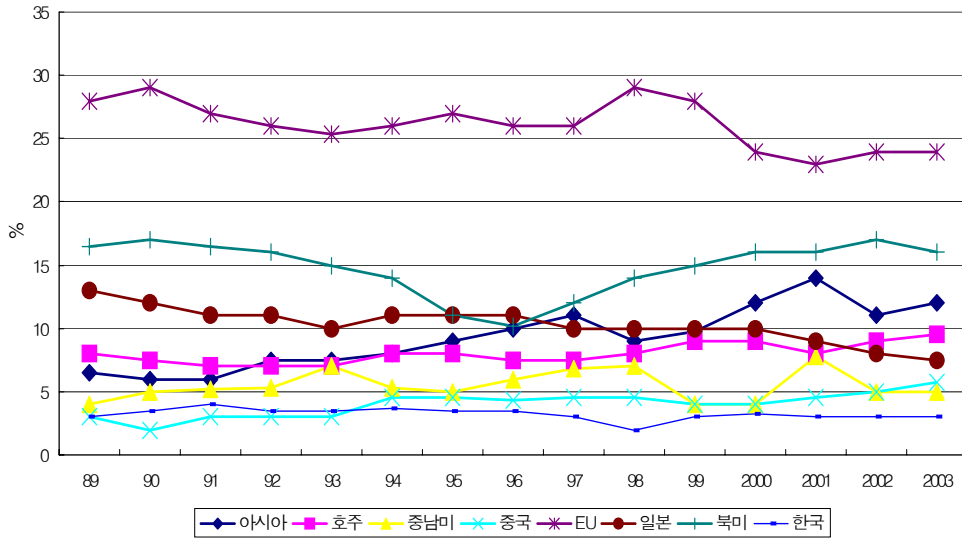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액의 약 40%를 EU 15개국과 북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EU지역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북미 지역은 증가추세에 있다<그림 4>. 이것은 유럽 연합으로의 유제품 수출은 감소하는데 비해 북미 지역으로의 육류 수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추세인데 비해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표 3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과 수입 현황

	품목별 수출비중			품목별 수입비중	
	1989-1991	2001-2003		1989-1991	2001-2003
유제품(04)	24.2	35.8	가공과일,채소(20,21)	14.1	20.2
육류(02)	29.2	28.3	음료(22)	12.2	13.6
원예품(06-08)	11.8	10.3	곡물류(10,19)	12.7	13.2
가공식품(15-21)	4.6	8.2	원예품(06-08)	14.1	11.5
양모(51)	15.7	6.2	설탕(17)	10.1	7.6
피혁,가죽(41,42)	7.4	3.7	피혁,가죽(41,42)	7.0	6.2
음료(22)	0.7	2.7	지방,오일(15)	5.1	5.4
기타	6.4	4.8	기타	24.7	22.3
계	100	100	계	100	10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4 농산물(식품포함)의 지역별 수출 비중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쇠고기의 경우 미국이 여전히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도 하나 일본과 한국 또한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양고기의 경우는 유럽연합이 주요 시장이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다. 유제품의 경우는 여러 나라에 널리 수출 되고 있으나, 버터와 치즈는 선진국이 주요시장이다(치즈는 일본, 미국, 호주, 유럽연합, 버터는 유럽연합). 분유의 주요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인데, 최근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신선 과일과 야채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유럽, 호주, 미국 등 이고 가축과 피혁의 주요 수출시장은 이탈리아, 한국, 중국 등이다.

자료: New Zealand MAF
 (박현태 htpark@krei.re.kr 02-3299-42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